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황방산 민간인 희생자 유해 추가 발굴

전주매일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음 5월 2일) 제32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초록빛 향연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6일 진안군 부귀면 메타세쿼이아 길이 초록빛 싱그러움을 가득 품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전주-진안간 모래재터널을 지나면 나타나는 1.5km 남짓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매혹적인 길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잼버리 개막 45여일 앞으로

새만금서 전북도 · 조직위 합동 '사전 미니잼버리' 개최

개 · 폐영식 열고 스카우트 과정 활동 등 진행
8월 잼버리 개최 전 사전점검 · 보완대책 마련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45여일 앞두고 전북도·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합동으로 행사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니잼버리를 개최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행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500여 명의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새만금세계잼버리장 내 야영장 및 영외과정활동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도 참석해 청소년 대원들과 지도자들의 야영활동을 현장 점검하는 등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등을 직접 살펴봤다.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본 행사가 개최되기 전 실질적인 사전 훈련 및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특히, 현 잼버리 부지가 야영 등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는 매립지로서 날씨, 토질, 해충 등 숙영여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및 재난 등 각종 비상·돌발상황에 대응할 대비체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미니잼버리를 통해 실제 참가하는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숙영, 취사,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타 특이사항 등 전반적인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미니잼버리 진행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참가자 모집, 과정활동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부대시설, 잼버리 물품지원 등을 협조했다.

주요 행사로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미니잼버리 개·폐영식을 개최했고 부안군 고사포 영외과정활동장에서는 다양한 스카우트 과정 활동을 진행했다.

개·폐영식에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주최 하에 장문례, 스카우트 선서 제창,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다짐행사와 함께 전북 각지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부안군 고사포 영외과정 활동장에서는 밧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숲 밧줄놀이, 2인 1조로 진행되는 잼버리 보드게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수공예 활동, 잼버리 달고나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임상규 행정부지사와 김영민 안전정책과장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폭우·폭염 대책 등 준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22개의 서브캠프에 30mX40m 간격의 내부 배수로와 간이펌프장 공사(100개소 설치예정) 현황을 점검했으며,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휴식공간 및 교류공간 제공 등을 위한 잼버리 부지 순환도로에 설치예정인 덩굴터널 등 폭염 대비시설을 점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미니잼버리 개최로 올해 8월에 열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앞서 최종점검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 미니잼버리에 참여해 주신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량 및 내부도로, 대집회장 조성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완료됐으며,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6월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도는 14개 시군과 전북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잼버리 콘텐츠의 다양화, 범부처 중점지원 과제와 도 협력과제 내실화, 도-시군간 연계협력 강화,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한류 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10년 후 내 모습 도화지에 직접

유·초·중·고 학생 · 가족 등 참가
7~8월 중 각 부문별 수상자 발표

군산시는 4년 만에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실시된 제9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가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제9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는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이사장 윤성태)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공모전으로 진행하다 올해 4년 만에 현장대회로 재개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과 가족 등 약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10년 후의 내 모습'이란 주제로 오랜만에 열린 현장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리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나와 대회장 곳곳에 텐트와 돗자리를 펼치고 자리를 잡았다. 준비한 물감과 색연필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속히 대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대회장은 달궈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길의료재단 의료원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직접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이 예술적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아·초·중·고 구분,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 500여 명을 선정하고 7~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북도지사상을 비롯해 전북도교육감상,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교육장상, 가천길재단회장상, 가천문화재단이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그리고 가천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부상이 제공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교육청-전교조 전북, 교육 발전 상호 노력 합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가 모든 학교에 보낸 단체협약 이행 점검 공문에 따른 최근 현안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전북교육청은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